	한국사	<b>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⑨</b> 고려-4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## ★고려사회의 동요 - 고려 [ 인증 ] 시기

## #-1 이자겸의 난

성종이후 국가체제 안정

→음서와 공음전을 바탕으로 특별계층 [문벌]이 형성

-폐쇄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차지

경원이씨 가문 - 왕실과 여러대에 걸쳐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차지.

이자겸 - 딸3명을 예종, 인종에 시집보냄

자신의 생일을 '인수절'이라고 표현하는 등 기만

&amp; '十八子爲王說'을 믿고, 자신이 왕이 되려고 시도.

but, 실패 (1126)

## #-2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

이자겸의 난 이후 왕실권위가 떨어지고 지배층이 분열

인종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서경(평양)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.

묘청 등 서경세력은 [풍수지리설]을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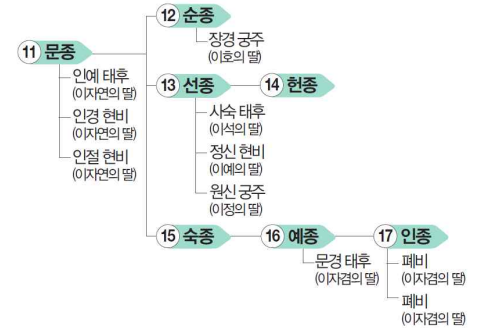
+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

← 김부식 등 개경세력의 반대에 부딪힘.

묘청은 국호를 '대위', 연호를 '천개'로 정하고 반란을 일으킴 (1135)

-묘청의 난은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 진압되면서 실패로 마무리.

신채호의 평가 - '조선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'이라고 칭함.



## 서경 세력의 주장


저희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(명당)의 땅입니다.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. 또한,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행복할 것이요, 주변의 서른여섯 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.

- "고려사" -

## 개경 세력의 주장

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. 서경이 만약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리 없습니다. ....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지금 행차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.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.

- "고려사" -

	한국사	<b>I.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⑨</b> <b>고려-4 고려사회의 동요와 무신정권</b>	학번	
	임종일 T		이름	

## ★무신정권의 수립

무신 : 문신에 비해 차별대우

+ 의종의 실정

이의방, 정중부 등이 무신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음 (1170)

무신정권은 지배한 무신에 따라 크게 **3시기**로 구분할 수 있음.**[성립기]**

&lt;이의방, 정중부, 경대승, 이의민&gt;이 최고 집권자인 시기

기존의 무신 정치기구 [ 중방 ]에서 주요정책 결정

**[확립기] : 최씨정권 / 4대 60년**

&lt;최충헌, 최우, 최항, 최의&gt;가 최고 집권자인 시기

최충헌이 [ 교정도감 ]을 만들고, 교정도감에서 주요정책 결정, 권력독점

&amp; [ 도방 ]을 확대하여 신변보호

+최우가 [ 정방 ]을 만들어 관리 인사를 담당

&amp; [ 삼별초 ]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을 다짐

++최우가 지배했을 때, 몽골족이 쳐들어옴.

so, 최우는 '강화도'로 수도를 천도

**[붕괴기]**

&lt;김준, 임연, 임유무&gt;가 최고 집권자인 시기

최씨정권이 무너지고, 무신정권도 약해지는 시기.

## #무신의 수탈이 심해짐 → 농민, 하층민의 봉기 多

-무신정변이후 지방통제력 약화 &amp; 무신들이 과도한 세금 부과

→ 특수행정구역 '공주 명학 소'에서 망이, 망소이의 난

→ 김사미, 효심의 난 (신라부흥운동)

→ 최광수의 난 (고구려 부흥운동)

→ 만적의 난 (노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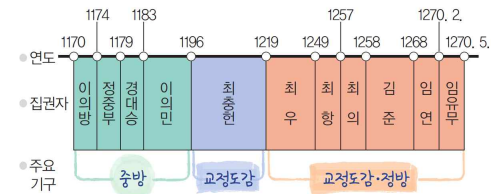
**망이 · 망소이의 난**

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,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? 차라리 칼날 아래에서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.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. - " 고려사 " -

**만적의 주장**

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. ".....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. (왕후장상의 씨가 따로있겠는가?)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. 우리들만 어찌 채찍 아래에서 몸을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." - " 고려사절요 " -

## ▶ 무신정권기



## ▶ 무신집권기의 난

